

벌써 1000회...광주상설공연, 지역 대표 브랜드공연으로 우뚝

“오늘로 대면 공연 ‘1000회’를 맞은 ‘광주상설공연’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매주 진행해 온 ‘광주 대표 브랜드공연’임을 자부합니다. 그동안 매주 5-6회씩 일 틈 없이 관객들을 만나 왔죠.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유튜브 생방송 등을 통해 공백을 채웠고, 광주세계수업선생수권대회 기간에는 매일 공연을 펼쳐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예술의전당이 ‘광주에 오면 꼭 봐야 할 광주만의 색을 담은 공연’을 기치로 내걸고 2019년 첫 선을 보인 ‘광주상설공연’이 지난 24일 대면 공연 1000회를 기록했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에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사민로3)에서 펼쳐져 온 상설공연은 매일 다른 레퍼토리를 관객들을 만나 왔다.

‘광주상설공연’은 광주시 대표 시립예술단인 8개 단체(시립발레단·창극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오페라단 등)와 민간예술단체 등이 참여해 클래식, 발레, 창극, 판소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광주상설공연 백영경 기획자는 “천 번의 공연 개최는 우리 지역 민간단체와 공연인, 광주 시민들의 사랑과 지원, 공연자들의 열정이 모여서 완성될 수 있었다”며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 등에서 지원해 준 덕에 기획자 등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00회라는 긴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다. 제주 중문갈매농장 조합원들이 곁을 가지고 와서 관람 후 모든 관객들 손에 곁을 쥐어줬던

일, 프랑스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이 공연 CD를 구매하며 ‘브라보’를 외쳤던 일 등은 여전히 새롭다.

지난달에는 예라의 ‘김신부부단’, 창극 ‘황후 심정’을 비롯해 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해물 품은 큰 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와의 여행’ 등을 대면 공연했는데, 그 장르와 관람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 밖에도 매주 일요일마다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 선정작을 무대에 올리는 ‘국악상설공연’을 통해 신명의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달만 해도 광주시립발레단의 발레 콘서트 ‘Voice of spring’,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광주시립창극단 ‘온고지신’ 등으로 관객들에게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공연비가 ‘전석 무료’라는 점 등도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저변을 넓혀 왔다는 평가다.

‘1000회’를 장식한 무대는 24일 펼쳐진 신 마당극 ‘뛰는 토선생 위에 나는 별주부’. 작품은 ‘2024년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 작으로 올해 민간예술단체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전통국악양상을 놓음판이 출연해 판소리 ‘수궁가’와 이슴우와 토끼와 거북을 각색한 현대판 놀이판을 선사했다. ‘탈모에 걸린 용왕’과 ‘용궁 만년 인턴사원 별주부’ 등 현대적인 배경 설정은 해학과 풍자의 묘를 준다. 오는 31일에도 공연 예정.

이 밖에도 올해 전통예술공연 작품으로 ‘도장이 그리는 광주의 맛과 풍류(루트머지), 창극 ‘춘향, 그 후...’ (판소리에술단 소리화), ‘이상한 나라의

광주예술의전당, 2019년 시작 시립예술단·민간예술단체 참여 클래식·발레·창극·판소리 무대



단막극 ‘화초장’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꼭두(예락)를 비롯해 ‘광주노정기-토선생기(타악그룹 얼쑤)’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4월에도 알찬 무대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첫 무대는 6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봄의 여행’으로, 합창단 단원들과 NS재즈밴드가 협연할 계획이다. ‘Aprile’, ‘나를 깨는 처녀’, ‘벚꽃엔딩’ 등 봄을 모티브로 한 곡들로 레퍼토리가 채워진다.



오는 31일 펼쳐지는 신 마당극 ‘뛰는 토선생 위에 나는 별주부’. <광주상설공연 제공>

13일 시립발레단이 펼치는 ‘해설이 있는 발레’도 계속된다. 곱사등이 망아지 중 ‘프레스코’, 라바아 데르 중 ‘인디언 댄스’ 등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갈라 형식의 콘서트다.

이 밖에도 20일 시립합창단은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을 주제로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가곡을 합창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27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봄! 그리고 그리움’도 관현악 합주곡부

터 대금 연주 등 국악 무대를 만나보는 자리다. 백영경 기획자는 “이번 1000회 무대를 넘어 광주 상설공연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며 “오늘의 대면 공연 1000회는 상설공연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하루하루’ 나, 너, 우리로 향하는 따뜻한 시선

이미경 개인전

30일까지 도화헌 박물관

나, 너 그리고 우리. 우리는 저마다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가족이라는 일차 집단은 혈연과 정서적인 특징을 이룬다.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과 맞물려 가족의 유대감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집단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미경 작가가 ‘하루하루’ (도화헌 박물관, 30일까지)를 주제로 풀어낸 작품들은 ‘우리’, ‘함께’, ‘가족’ 등 파스하면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발한다.

더욱이 고희반도 끝자락에 자리하는 미술관은, 자칫 외지고 고립된 이미지를 함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우리 등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은 ‘함께한다’는 의미와 결부해, 남다른 의미를 환기한다.

박성환 관장은 “작가의 이전 작업들이 ‘의자’라는 사물을 자신의 페르소나로 했다면 지금의 작업들은 ‘의자’가 담긴 ‘집’으로 확장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라며 “나를 넘어 ‘우리’로 향하는, 타자에게로 시선을 넓히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으로 가는 길’

‘우리 함께’는 많은 집들 위로 배치된 파란 의자를 묘사한 작품이다. 의자는 아기가자기한 집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오브제의 기능 뿐 아니라 삶의 의미



‘우리 함께’

까지도 담고 있다. 또한 파란색 의자를 덮고 있는 초록의 화분은 자연, 건강성을 상징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 주는 경쾌함, 포근함, 안락함의 이미지는 작가가 추구하는 ‘집’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집 위로 비추는 하얀 달, 집을 둘러싼 하얀 배경은 오늘의 삭막한 아파트숲과는 다른 여유와 평안을 느끼게 한다.

한편 이미경 작가는 조선대에서 그림을 공부했으며 17회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듣다

GB작가 스튜디오탐방

28일 서영기 작가

경험과 상상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경험에 상상을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영기 작가의 작품 ‘잃어버린 방향’, ‘냄새가 난다’ 등은 어떤 특정 경험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서 작가의 창작 작업에서 경험과 상상은 예술 활동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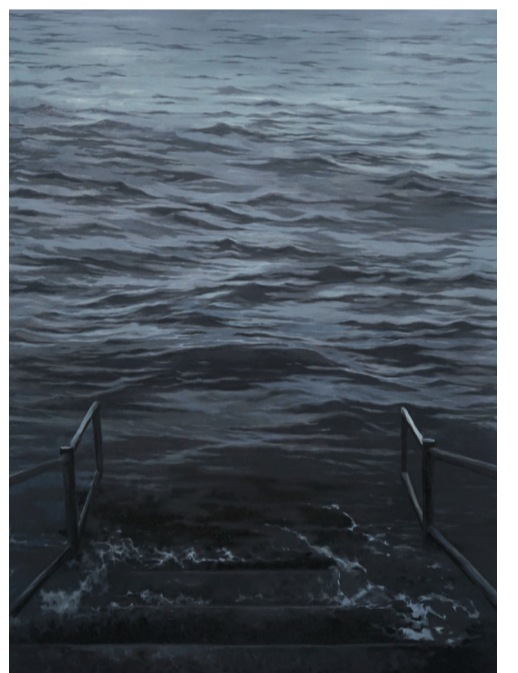
서 작가 작품 세계를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서 작가의 작업실에서 진행되는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 작가 스튜디오탐방에서다.

그의 작품 ‘잃어버린 방향’은 검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물가에 내려진 시설물을 모티브로 한다. 바닷물에 잠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중충한 바다와 출렁이는 물결이 집어삼킨 시설물은 위태로워 보인다.

작품은 얼핏 현실과 현실, 경험과 상상 어느 경계에 놓인 것 같기도 하다.

서 작가에 대한 탐문을 깊이 있게 확장해주는 이는 박지현 큐레이터.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로 재직 중인 박 큐레이터는 보안역관 ‘스틸라이프 인 드림드림드림’ 등을 기획했다.

박양우 대표는 “이번 GB작가스튜디오 탐방은



‘잃어버린 방향’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작품 세계를 열어왔던 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인터뷰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낭만과 정열’ 스페인·이탈리아 예술가곡의 향연

광주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4월5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낭만과 정열이 넘치는 스페인·이탈리아 예술가곡을 만나는 공연.

광주성악아카데미가 제76회 정기연주회 ‘정열의 스페인 이탈리아 예술가곡’을 4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친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한 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 등이 대거 출현, 남유럽의 정취를 음악으로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소프라노 박선경이 부르는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으로 연다. 이어 베이스바리톤 문주환이 부르는 토스티 곡 ‘마레키아레’, 소프라노 김지영이 들려주는 커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가 울려 퍼진다.

테너 박승수는 ‘4월’, 바리톤 노시내는 ‘Nebbie’로 관객들을 만난다. ‘아라고네세’는 소프라노 박수연이, ‘나는 왜 울지 않고’는 바리톤 염중호, ‘브린디시’는 소프라노 나혜숙이 부른다.

2부 공연은 스페인 노래들로 채워진다. 소프라노



지난해 10월 광주성악아카데미가 수완체육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공연 장면. <광주성악아카데미 제공>

장마리아(‘Vals de Angelita’), 김진남(‘En Jerez de la Frontera’), 김수민(‘작은 신부’)의 곡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여러 음악대의 성악가들이 함께 부르는 ‘Todas las mananitas’는 페넬라의 곡이다.

광주성악아카데미 김희열 사무국장은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남유럽 여행을 떠나 그들의

음악 스타일, 언어, 문화를 느끼는 시간”이라며 “평소 스페인 성악음악은 쉽게 접하기 힘들지만, 이번에는 이탈리아 예술가곡과 함께 만남으로써 색다른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술이백그라운드 ‘노갈 콘서트-일상유희’

4월 5일 씨어터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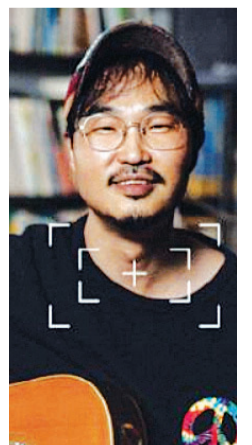
발매한 음반을 모두 ‘완반’할 때까지 진행되는 콘서트. 하나로 규정짓기에는 넓은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연.

예술이백그라운드 ‘노갈 콘서트-일상유희’를 4월 5일 오후 7시 30분 씨어터연바람에서 펼친다. 싱어송라이터 ‘노갈(NOGAL·사진)’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노갈 정규 1집 ‘일상유희’ 발매 기념으로 전국투어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밴드 ‘나비맛’에서 여러 앨범을 통해 활동하던 노갈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음악적 입지를 다져온 가수 겸 작곡가다. 그가 추구하던 밴드 음악과 이번 앨범 모두 하나의 장르로 규정짓기에는 다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노갈은 그동안 록을 기반으로 포크, 블루스,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록 등을 만나들어왔다. 현재 성북동 ‘짜즈 스토리’ 메인 싱어이며 2013, 2019년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입상했다.

공연은 2020년 4월 첫 녹음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발매한 앨범 수록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브리타시 음악의 ‘축축’하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널 기억하는 일’, 사랑의 뱃노래 ‘Sail Away’ 등이 실려 있다. 오래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와 앰프 사운드, 전자-베이스 기타 및 악기들의 앰비언스(공간성)가 돋보이는 타이틀 곡 ‘파도’도 이목을 끄는 곡이다. 이 밖에도 ‘영원의 관점 아래’, ‘소망’, ‘변화’ 등의 곡들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티스트 강주와 콜라보한 표제작 ‘일상유희’, 성지승과 함께 작업한 ‘사랑’도 레퍼토리에 있다.

특히 이번 전국투어는 발매한 앨범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진행한다. 현재 3만원, 예매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